

제 0화 성배기사

제 0장 주요 이동경로



| 비행객선 루시타니아호



리벨=아크 붕괴로부터 반년 뒤. 게임을 시작하면 가면무도회가 한창인 루시타니아호에서 시작한다. 콘라드의 소개 중,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남자와 젊은 마담의 대화가 끝나면 가면을 쓴 신사를 움직일 수 있는데, 우선 가면을 쓴 신사의 목적지인 **최상층의 프라이빗룸**으로 향하자. 프라이빗룸으로 향하기 전 콘라드와 무리들에게 다가가면 그들의 대화를 들을 수 있다. 또한, 무도회장 밖에 있는 객실에 들어가면, 그곳에 있는 보물상자에서 각종 아이템들을 얻을 수 있다. 나가기 전 뭔가 기척 같은 것을 느끼는 신사. 기분탓으로 넘기며, 진행을 계속한다.

영웅전설이나 팔콤팬이라면 무도회장에서 뒷층으로 가는 길에 벽면을 자세히 살펴보자.

왠지 어디서 많이 본 그림들을 볼 수 있다.

또한 중간의 도서관에서 카네리아를 읽을 수 있다.

한 길을 쭉 따라가면 프라이빗룸 앞의 검은 옷차림의 보디가드들이 저지하는데, 남자는 가볍게 무찔러 버린다. 이제 방 안으로 들어가자. 방안을 조사하다보면 스위치를 발견할 수 있는데, **화분, 책상, 전구, 꽃병, 양탄자**의 스위치를 누르면 비밀문이 열리게 된다. 단, 소파에 있는 스위치를 누르면 전부 원상태로 돌아가니 주의. 비밀문이 열리면 이제 암호를 입력해야 하는데, 2번째인 **O R P H E U S**가 정답이다. 문을 열고 방 안에 들어가, 아티팩트인 [어리석은 자의 로켓]을 손에 넣는 남자. 그 순간 경보음이 울리며 문이 닫힌다. 보디가드들이 달려들어 위협하지만, 남자는 어쩐지 천하태평이다. 그러더니, 상당한 두께의 강철문이 박살나면서 아까 그 가면을 썼던 남자, 케빈이 모습을 드러낸다.



바로 보디가드들과의 전투가 시작되지만,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크게 어렵지는 않다. 가볍게 무찔러주자. 이들을 이긴 뒤에, 무도회장으로 돌아가다 보면 계속 전투가 이어지는데, 전투 전후로 HP를 신경 쓰며 아츠와 크래프트를 적절히 사용하면 무난히 이길 수 있다.

무도회장으로 돌아가면 아수라장이 되는 무도회장과 당황해하는 콘라드. 콘라드는 케빈이 성배기사단의 수호기사라는 사실을 알고선, 예거병을 재촉하여 어리석은 자의 로켓을 되찾으려 하지만, 케빈은 너무도 가볍게 제압하고, 콘라드를 포획(?)한다. 뒤이어 단체로 달려드는 예거병들에게 싸늘한 눈초리를 날려주던 케빈은 그대로 창문 밖으로 뛰어내리고, 그 순간 지나가는 비행선. 케빈을 태운 소형 비행선은 그대로 자리를 떠난다. 케빈과 주최자가 사라지고, 혼잡한 무도회장 인파 사이에서 '환영의 왕'이라는 사람이 뭇 모를 불길한 말을 남기며 사라지는데...

수호기사 전용기 메라카바에서, 케빈은 종기사들의 애정(?)어린 잔소리를 들으며 알테리아법국으로 향한다. 그 와중에 세르나트 총장에게서 연락이 오고, 세르나트 총장은 케빈에게 리베르에 있는 [회수물]의 처리를 부탁한다. 그곳에는 새로 케빈의 휘하에 들어온 신참 종기사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케빈은 그런 세르나트의 결정에 당황해 하지만, 상관의 말이니 어쩔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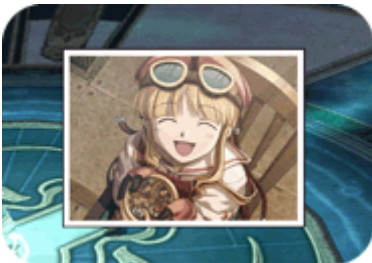
있다. 그렇게 새벽을 맞으며, 케빈은 홀로 리베르로 향하고, 부하들은 이번 일의 뒤처리와 함께 법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한다.

| 정기선 크레트나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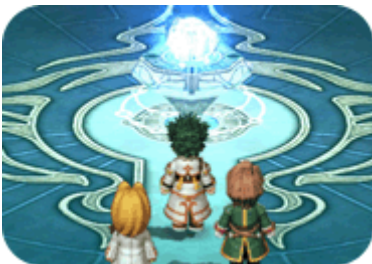
장소가 바뀌어 정기선 그레트나호. 반가운 얼굴인 도로시와 재회를 하게 된 케빈. 도로시와 대화를 즐긴 뒤,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누며 비행선 안을 돌아다닐 수 있다. 이곳에서 모든 손님들에게 대화를 걸고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다 보면 어느새 비행선이 그란셀공항에 도착했다는 방송이 들려온다.

| 그란셀 대성당 지하



반 년 전의 혼란은 사라지고 평화가 깃든 그란셀. 케빈과 도로시가 얘기를 나누는 도중, 나이엘이 도로시를 마중나왔다. 알고 보니 도로시는 보스로 취재를 하러 간 것이었는데 탄동네로 가버린 것. 케빈을 보자 놀라는 나이엘은 도로시가 무슨 사고라도 쳤을까봐 안절부절하지만 곧 아니라는 얘길 듣고 안심한다. 그리곤 도로시를 끌고 가버린다. 여전한 나이엘과 도로시에 이어 나타난 것은 미리 케빈을 기다리고 있던 시드 중령.

시드 중령의 안내를 받아 그란셀 대성당에 도착한 케빈은 그곳에서 호쾌한 성격에 무섭기까지 한, 이번 일의 협력자인 티타의 엄마, 에리카 러셀을 만나게 된다. 에리카는 협력자로, 이번 문제의 아티팩트의 발견자라고 한다. 그 뒤 세 명은 그란셀대성당 지하로 내려가게 된다. 애거트를 향한 에리카의 분노에 찬 목소리를 들으며 지하에 내려오면, 이내 막힌 곳에 도달하게 된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 당황하는 두 사람. 하지만 이것은 암시라는 설명과 함께, 케빈은 둘에게 믿을 수 있는 사람 이외에는 말하지 말라고 다짐하라면서 메달을 꺼내들고, 빛과 함께 문이 생긴다.



문 앞에 있는 곳은, '시작의 땅'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그곳에는 얼마 전 발레리아 호수에서 인양한 리벨=아크의 잔해가 보관되고 있었다. 에리카의 말로는 인양 당시 강한 도력 반응이 나타났었지만, 순식간에 사라졌다고 하고, 케빈은 힘을 잃은 아티팩트는 회수 대상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러자 에리카는 아티팩트에 관심을 보이며 자신이 가져가겠다고 말하는데, 그때 뒤에서 들려오는 어떤 여자의 목소리. 그리고 나타난 것은 리스 수녀였다.

어쨌든 분위기는 진지했으나, 돌연 리스의 귀여움에 놀란 에리카는 늘 가지고 다니는 소중한 티타의 사진을 꺼내들어 입이 마르고 닳을 정도로 귀여워한다. 그때, 갑작스럽게 이상한 기운과 함께 뭔가를 느낀 두 사람. 당황하는 가운데에 빛을 잃었을게 틀림없던 아티팩트가 빛을 내며, 그 안에서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은 입방체 모양의 아티팩트가 나타난다.

| 왕도 그란셀 항구

입방석을 회수한 뒤 밖으로 나온 케빈은 리스와 얘기를 하는데, 알고 보니 두 사람은 아는 사이였다. 5년 동안 자신도 바뀌었다고 말하는 리스에게 케빈은 최소한 말투만이라도 예전처럼 해달라고 말하고, 결국 예전처럼 편한 말투로 대하는 리스. 그 뒤 가게의 남은 음식을 싹쓸이한 리스와 케빈은 백



화점 뒤의 누군가의 움직임을 눈치채고, 그를 유인한다. 그리고 항구에는 어디선가 낮이 익은 사내가 헤매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자칭 엘리트 길버트였다. 케빈과 리스에게 딱 걸린 길버트는 당황하며 비굴하게 구는가 싶더니, 비장의 오버머펫을 꺼내든다.

BOSS STAGE



BOSS. 길버트 , G-아파시

길버트나 G-아파시나 둘 다 스테이터스 다운 공격을 하므로 이를 조심하자.

길버트는 체력이나 방어력이 낮지만, 동결공격을 하거나 STR, DEF를 다운시키는 기술을 쓰는 등, 여러가지로 번거로운 공격을 많이 하니, 길버트를 먼저 쓰러뜨리도록 하자. G-아파시의 크래프트 중 직선 거리 공격인 [브레이크 캐논]은 캔슬이 불가능하지만, 발동까지 꽤 시간이 걸리므로, 이를 노려 잘 피하도록 하자. 맞을 경우 상당히 아프고, 거기다 방어력까지 감소하므로 주의.



길버트를 혼내주고 심문을 하는 케빈. 어쨌든 결사 우로보로스의 일원이니... 그 옆에서 진지하게 배가 고파 화난다는 이유로 반쯤 죽여도 되냐고 말하는 리스 때문에 겁먹은 길버트에게, 케빈은 현상수배가 되어있는 길버트가 어째서 그란셀을 돌아다니는지를 묻는다. 그 순간, 케빈과 리스는 또 다시 알 수 없는 기운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갑자기 나타난 기묘한 모양의 검은색 갑옷을 입은 남자가 나타난다. 그러자, 케빈이 지니고 있던 입방석이 빛나기 시작하고, 주변은 삼시간에 빛에 둘러싸이게 되는데...

그리고 그 둘이 정신을 차린 곳은 정체 불명의 공간.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그런 의문속에서 제0화는 막을 내리게 된다.

인쇄하기

다운로드

닫기

TOP ▲